

최근에 발행된 논문의 저자, 제목, 잡지명

Lung cancer in motor exhaust-related occupations. Hayes RB, Thomas T, Silverman DT, Vineis P, Blot WJ, Mason TJ, Pickle LW, Correa P, Fontham ET, Sohoenberg JB. *Am J Ind Med* 1989; 16(6): 685-95

Dose-excretion relationship in tetrachloroethylene-exposed workers and the effect of tetrachloroethylene co-exposure on trichloroethylene metabolism. Seiji K, Inoue O, Jin C, Liu YT, Cai SX, Ohashi M, Watanabe T, Nakatsuka H, Kawai T, Ikeda M. *Am J Ind Med* 1989; 16(6): 675-84

Neurochemical effect of lead exposure: a study on catecholamine metabolism. Ong CN, Chia KS, Koh D, Saijoh K. *Am J Ind Med* 1989; 16(6): 667-73

Occupational risk of decreased plasma cholinesterase among pesticide production workers in Taiwan. Wu YQ, Wang JD, Chen JS, Chung SC, Hwang SY. *Am J Ind Med* 1989; 16(6): 659-66

Follow-up of hearing thresholds among forge hammering workers. Kamal AA, Mikel RA, Faris R. *Am J Ind Med* 1989; 16(6): 645-58

Lymphatic and hematopoietic tissue cancer in a chemical manufacturing environment. Ott MG, Teta MJ, Greenberg HL. *Am J Ind Med* 1989; 16(6): 631-43

Occupational asthma due to unheated polyvinylchloride resin dust. Lee HS, Yap J, Wang YT, Lee CS, Tan KT, Poh SC. *Br J Ind Med* 1989; 46(11): 820-2

Relation between renal function tests and a retrospective organic solvent exposure score. Hotz P, Pilliod J, Soderstrom D, Rey F, Boillat MS, Savolainen H. *Br J Ind Med* 1989; 46(11): 815-9

Risk of cancer in pesticide applicators in Swedish agriculture. Wiklund K, Diod J, Holm LE, Eklund G. *Br J Ind Med* 1989; 46(11): 809-14

Neuropsychiatric effects of low exposure to styrene. Flodin U, Ekberg K, Andersson L. *Br J Ind Med* 1989; 46(11): 805-8

Role of computed tomography in evaluating asbestos related lung disease. Lozewicz S, Reznek RH, Herdman M, Dacie JE, McLean A, Davies RJ. *Br J Ind Med* 1989; 46(11): 777-81

Pulmonary function among pulp and paper workers in Berlin, New Hampshire. Henneberger PK, Eisen EA, Ferris BG Jr. *Br J Ind Med* 1989; 46(11):765-72

Health significance of cadmium induced renal dysfunction: a five year follow up. Roels HA, Lauwerys RR, Buchet JP, Bernard AM, Vos A, Oversteijns M. *Br J Ind Med* 1989; 46(11): 755-64

Standard setting in occupational health: "philosophical" issues. Zielhuis RL, Wibowo AA. *Am J Ind Med* 1989; 16(5): 569-98

Cancer risks associated with 10 inorganic dusts: results from a case-control study in Montreal. Siemiatycki J, Dewar R, Lakhani R, Nadon L, Richardson L, Gerin M. *Am J Ind Med* 1989; 16(5): 547-67

Outcome of pregnancy in women engaged in laboratory work at a petrochemical plant. Axelsson G, Rylander R. *Am J Ind Med* 1989; 16(5): 539-45

Study of respiratory impairment among pesticide sprayers in Mango plantations. Rastogi SK, Gupta BN, Husain T, Mathur N, Garg N. *Am J Ind Med* 1989; 16(5): 52

주요논문초록

『병원 여성근로자에 있어서 힘든 작업 조건과 근골격계 질환』

저자 : Estryn-Behar M, Kaminski M, Peig-
ne E, Maillard MF, Pelletier A,
Berthier C, Delaporte MF, Paoli
MC, Leroux JM

출처 :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 62(1): 47 ~ 57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에 있어서 작업 조건과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1986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큰 병원들에서 26개 부서를 선택하였다. 이들 부서 근로자의 90%가 그들의 작업조건, 사회인구학적 특성, 지난 12개월간의 건강에 대하여 설문응답하였고, 의학적 검사를 받았다. 연구의 대상자는 1,505명이었다.

질병으로 인한 결근의 주원인이 근골격계 질환이었는데 전체의 16%가 해당되었다. 47%가 背部통증을 호소하였으며 28%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작업조건을 작업자세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작업, 한 시간에 10회 이상 허리를 굽히는 작업, 불편한 자세가 지속되는 작업.

누적자세지표(cumulative posture index)를 여성근로자가 노출되는 작업조건의 수에 대하여 형성하였다. 누적 들어 올림(cumulative lifting index)도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 4개의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15kg 이상 들어 올리는 일, 하루에 10회 이상 들어 올리는 일, 하루에 10분 이상 침대나 트롤리(병원에서 의료기구를 넣어 밀고 다니는 활차, 역자주)를 미는 일.

혼합지표(mixed index)를 앞의 두 지표와 연관지어 형성하였다. 이들 지표와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계를 연령, 비만, 자녀 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스포츠, 직업수준, 그 직업에 종사한 경력, 요통의 과거력, 정신건강(일반 건강설문에 의해 평가된) 등의 혼란변수를 통제한 후에 살펴보았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혼합지표와 다른 위험요인을 대수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자세와 드는 일에 있어서 힘든 작업을 하는 여성이 보다 덜 힘든 작업을 하는 여성보다 근골격계 질환이 약 두배 많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병원에서 과중한 업무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톨루엔의 여러 농도에 대한 반응』

저자 : Baelum J, Lunqvist GR, Møhlave L, Anderson NT

출처 :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 62(1):65 ~ 71

31 ~ 50세의 연령층에 있는 32명의 남자와 39명의 여자에게 다음의 조건하에 각각 7시간 동안 노출시켰다. (1) 맑은 공기, (2) 100ppm의 톨루엔에 계속 노출, (3) 시간 가중 평균치는 같으나 30분마다 300ppm으로 정점에 이르게 하는 노출.

노출되는 동안에 연구대상자에게 50 ~ 100W 일량에 해당되는 15분간의 운동을 3회 실시하게 하였다. 톨루엔에 노출된 사람들은 공기가 나쁘고, 덥고, 시끄럽고, 코와 하부기도에 자극이 되며, 중독되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P < 0.05$). 또 목안에 자극이 있고, 두통과 현훈을 호소하는 경향도 있었다 ($P < 0.1$).

4가지의 작업검사(performance test)를 시행한 결과 불면증 검사(vigilance test)에서는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peg board test, 5개의 연속적인 반응검사(reaction test), 색신검사(color test)에서는 정신운동이나 시력운동에 있어서 효과가 있더라도 최소한에 그쳐 톨루엔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점농도를 포함시킨 노출과 일정한 폭로사이에 있어서 급성효과는 차이가 없었다.

『작업장에서의 자살 : 발생, 희생자의 특성, 외부원인』

저자 : Conroy C

출처 :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89; 31(10):847 ~ 851

일반 인구집단에서는 자살에 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근로자들의 작업장내의 자살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작업장내의 자살에 관해 기술되어 있는 National Traumatic Occupational Fatality data(미국 직업성 외상 사망 자료)를 이용한 연구이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망의 3%는 자살이었으며 연평균 사망률은 백만명당 2.3명이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이 많았다. 남자가 여자보다 7배, 백인이 흑인에 비해 1.6배나 많았다. 여자들도 남자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였으나 일반 인구집단이나 남자 근로자에 비하여 각 방법의 비율은 달랐다. 군부대,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살이 많았다.